

‘하얀 흙으로 꾸민 도자기, 분청사기’

이 안내서는 **인솔 교사** 또는 **보호자**를 위한 **자료**입니다.
어린이가 감상활동지를 활용하여, 전시품을 충분히 관찰하고,
생각한 것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사전·사후 학습 영상 추천
[국립중앙박물관]
도자기를 빚는 사기장의 공방



도자기

도자기는 **흙으로 빚어서 만든 그릇**으로 ‘**도기**’와 ‘**자기**’를 합친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자기’를 가리켜 도자기라고 부릅니다.

자기(청자, 백자 등)는 유약을 입혀 1200도 이상에서 구운 그릇으로
낮은 온도에서 굽는 도기보다 높은 수준의 기술과 시설이 필요합니다.

분청 사기

15세기~16세기 초반에 만들어진 조선의 도자기입니다. 이름 없이 전해지던

그릇의 특징을 보고 미술사학자 고유섭이 1930년대에 새롭게

‘분장회청사기(粉粧灰靑沙器)’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회청색 흙으로 만든 그릇에
흰 흙을 바르고 무늬를 새기거나 그려서 장식한 도자기라는 뜻입니다.

분청사기는 흰 흙을 거침없이 바른 분장 효과로 인해 투박해 보이기도 합니다.

고려청자의 세련됨이나 조선백자의 단정함과는 다르게 자유롭고 개성있는 아름다움을 지닌
도자기입니다. 왕과 궁궐에서 사용하던 백자를 만드는 분원이 경기도 광주에 생기고,
백자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면서 분청사기는 16세기 중엽 이후 사라지게 됩니다.

고려 청자
12세기 이후



조선 분청사기
15~16세기 중엽



조선 백자
15세기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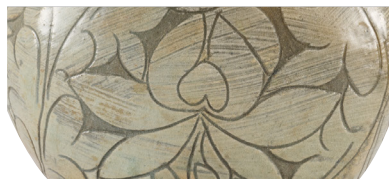
활동

어린이가 전시품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도록 질문해 주세요.

- 분청사기에는 어떤 동식물이 표현되었나요?
- 분장기법으로 그릇을 제작하면 어떤 점이 편리할까요?
- 만약 내가 분청사기를 만든다면 어떤 장식기법으로 꾸미고 싶나요?
- 박물관에 문화유산을 기증했을 때 기증자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장식기법

분청사기는 흰 흙을 분장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무늬를 꾸몄습니다. 상감, 인화, 조화, 박지, 철화, 귀얄, 분장 등 7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 또는 여러 가지 방법을 섞어서 무늬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무늬	기법	설명
	상감·인화	연꽃은 무늬를 새긴 자리에 흰 흙과 붉은 흙을 메워 넣어 표현했어요. (상감) 여백을 채운 점무늬는 도장을 찍은 뒤, 파인 곳에 흰 흙을 메워 꾸몄어요. (인화) * 높은 온도에서 구우면 흰 흙은 흰색으로, 붉은 흙은 검은색으로 변합니다.
	조화·박지	모란꽃은 그릇을 흰 흙으로 분장한 다음 조각칼 로 새겼어요. 무늬 외의 배경은 긁어내서 공간 속에 꽃이 피어 있는 느낌을 주어요.
	철화	물고기는 붉은 갈색의 산화철 안료로 그렸어요. 붓 으로 표현된 질감과 열음의 농담이 멋스러워요.
	귀얄	거친 것이 빠르게 지나간 흔적이 있어요. 돼지털, 말총 등을 넓적하게 묶어 만든 귀얄 이라는 붓에 흰 흙을 묻혀 그릇 표면에 칠했어요.
	분장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흰 흙의 표현이 보여요. 그릇의 굽을 잡고 농도가 짙은 흰 흙물에 담갔다가 꺼냈어요.

분청사기 상감인화 연꽃 넝쿨무늬 병

분청사기 조화박지 모란무늬 편병

분청사기 철화 물고기무늬 장군

분청사기 귀얄무늬 대접

분청사기 분장무늬 사발

예시 답안

① 전시실 관람 후 어린이가 스크래치 활동을 하면서 분청사기의 조화기법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② 도장 / ③ 모란 / ④ 물고기 / ⑤ 귀얄

도움 자료 분청사기를 만드는 도구

도장 원하는 무늬를 양각한 도장입니다. 사기장은 그릇 표면을 도장으로 찍은 후 흰 흙을 메워 넣어서 반복적인 무늬를 만들었습니다.



귀얄 귀얄은 돼지털, 말총 등을 넓적하게 묶어 만든 붓입니다. 사기장은 귀얄에 흰 흙을 묻혀 그릇 표면을 쓱 칠하여 무늬를 만들었습니다.

도움 자료 분청사기 형태

편병

흙으로 둥근 몸체를 만든 후 양면을 편평하게 두드려서 만든 병입니다.



장군

배가 볼록하고 가운데에 목이 좁은 주둥이가 달린 그릇입니다.



⑥ '기증 문화유산 수납서'는 박물관이 기증자에게 전달하는 증서입니다. 어린이들이 "내가 기증을 한다면 어떤 물건을 기증할까?"라는 상상을 하며 자연스럽게 기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나만의 무늬, 분청사기에 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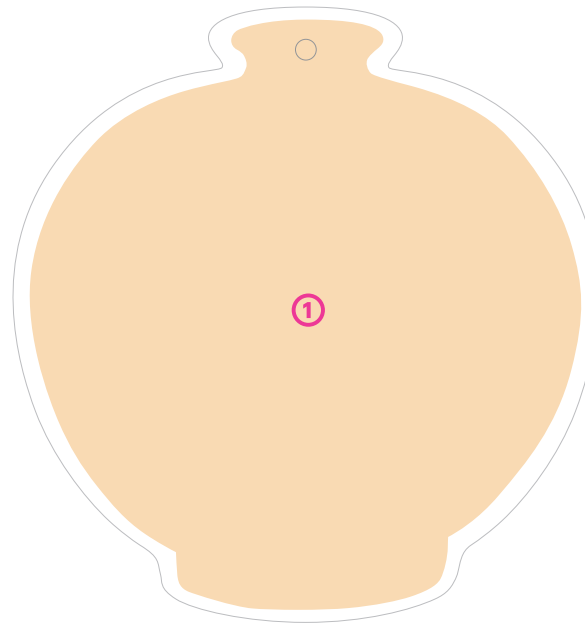
다양한 무늬를 새겨 나만의 분청사기를 만들어보세요!

<체험방법>

- ① 전시실에서 분청사기 무늬를 감상해요!
- ② 나무막대로 도자기 표면을 긁어서 무늬를 새겨요!
- ③ 구멍에 실을 달아서 분청사기 그림카드를 만들어요!
- ④ 친구들과 어떤 무늬를 왜 그렸는지 서로 이야기를 나눠요!



완성 예시



무늬를 감상해요!

분장기법으로 꾸민 다양한 무늬를 감상해 보세요. 어떤 무늬인지 빈칸에 적어 보세요!



흑백으로 상감한 연꽃무늬와 꼭꼭
② 을 찍은 반복적인 점무늬가 있어요!

분청사기 상감인화 연꽃 병
약 15세기 / 높이 31.8cm / 보물 / 이흥근 기증



꽃 중의 왕이라고 불리는
③ 꽃은 많은 재산과 높은 지위를 상징해요!

분청사기 조화박지 모란무늬 편병
약 15세기 후반 / 높이 19cm / 이견희 기증



④ 는 알을 많이 낳아서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을 상징해요!

분청사기 청화 물고기무늬 장군
약 15세기 후반 / 높이 16.8cm / 이견희 기증



돼지털, 말총 등으로 묶어 만든 붓인
⑤ 로 무늬를 표현했어요.

분청사기 귀얄무늬 대접
약 15세기 후반 / 높이 8.7cm / 이견희 기증

원본 '1c1c'를 '금고' '영조' '종로'

나눔의 가치, 기증

기증은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자신의 물건을 남에게 주는 것을 말해요. 기증자가 소중하게 수집하여 기증한 문화유산이 박물관에는 많이 있어요.

오늘은 내가 기증자!

• 내가 기증하고 싶은 물건은?

• 기증자의 벽

박물관에는 소중한 문화유산을 기증해 주신 수많은 기증자들을 기리는 공간이 있어요.



⑥ 기증 감사장

어린이에게
당신이 소중하게 기증하신 _____ 을(를)
박물관에서 잘 보관하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전시하고 연구할 거예요.
당신이 보여 주신 따뜻한 마음을 기억하며 감사장을 드립니다.

년 월 일
국립중앙박물관장

친환경 종이와 잉크를 사용했습니다.

나눔의 가치, 기증

이번 전시에는 동원 이흥근 선생과 이견희 회장의 기증품이 전시되었습니다. 기증된 문화유산이 전시될 경우 기증자의 이름을 함께 표시합니다.

동원 이흥근 선생(1900~1980)

이흥근 선생님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모두 겪으면서 문화유산이 사라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선생님은 평생에 걸쳐 많은 문화유산을 모으며 힘이 닿는 만큼 온전하게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선생님이 돌아가신 뒤, 가족들은 우리 옛것을 사랑한 선생님의 뜻을 존중하여 수집품을 나라에 기증했습니다. 1980년부터 4번에 걸쳐 기증한 문화유산은 총 1만 202점이나 됩니다.

이견희 회장(1942~2020)

2021년 4월 28일 고 이견희 삼성 회장 유족은 그의 수집품 중 문화유산 9,797건 2만 1,693점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했습니다. 그의 기증품은 청동기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금속, 도토기, 전적, 서화, 목가구 등으로 폭넓고 다양합니다. 이견희 회장은 "문화유산을 모으고 보존하는 일은 인류 문화의 미래를 위한 것으로서 우리 모두의 시대적 의무라고 생각한다." 라고 했습니다.